

# 장성군 삼계농공단지, 강설 대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 원격제어시스템과 연계 선제적 제설 가능

장성군은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삼계농공단지에 지난 9월말까지 설치 마무리를 하였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다.

도로 경계석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는 현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모니터링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도로상태를 확인하

고 PC 및 스마트폰으로 염화칼슘과 물이 섞인 '염수'를 살포할 수 있는 장비로 산단내 초동대저를 통한 겨울철 제설작업에 큰 효과가 있다.

이번에 설치된 염수 분사장치는 염수만 살포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염수와 소금을 동시에 살포해 결빙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장

이 있다.

삼계농공단지는 경사가 심해 적은 눈에도 진입이 어려워 임주업체의 매년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에 설치한 자동염수살포장치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어 산단 임주업체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무안군, 한의약 만성질환 예방사업 운영



무안군은 12월 6일까지 남약전 강생활지원센터와 청계보거지소에서 중년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인 '한의약 만

성질환 예방사업'을 운영한다. '한의약 만성질환 예방사업'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접근으로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과 병행하여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명상 및 호흡훈련 통한 기공체조와 요가, 한방약재를 이용한 비누 및 방향제 만들기 체험 등으로, 기초체력 증진과 심신단련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자기관리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강진군, '김영랑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영랑 김윤식 시인(1903~1950)의 브랜드 격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영랑시문학상 운영의 쇄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23일 강진군이 개최한 '김영랑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전문가들과 주민 60여 명이 참여, 지금까지 추진했던 영랑선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하훈 영랑기념사업회장은 김영랑 선생 선양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이란 주제 발표에서 "영랑시문학상 상

금(1천만 원)이 16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없다"면서 "영랑 시인의 무게감으로 보아 상금 증액은 불가피하며, 강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랑시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선주 광남일보 문화특집 부장은 "국내 문학상의 현주소와 개혁방안'의 주제발표에서 "대부분의 문학상들이 정실주의나 연구주의, 나뉘 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학상의 건강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영랑시문학상 역시 한계점이 노출돼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운영위를 조직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덕규 단국대 예술대학장은 '김영랑 문학콘텐츠의 발전 방안과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문학상 운영은 먼저 운영위가 꾸려지고, 그 운영위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선정토록 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영랑의 문학자원은 전국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중앙언론사와의 연계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기 박사(시문학파기념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김영랑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이 그대로 투영돼 나타났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은 영랑문학제의 지역적 한계 노출, 영랑기념사업회의 활동 미약, 영랑시문학상의 비합리적 운영, 지역에서 영랑을 품고 있는 한 전국화 요원, 영랑·현구문학제의 통합 개최 방안 검토, 영랑 묘소 강진으로의 이장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함평 국향대전 야간개장' 잇단 호평

### 미디어 파사드 '빛과 생명' 연장 운영

지난 18일 개막한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올해 처음 실시한 야간개장(오후6시~9시)으로 잇단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개막식에서 처음 선보였던 '미디어 파사드'는 연일 계속된 연장 요청에 25일부터 금-토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야간 볼거리 조성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했던 함평엑스포 공원 야간경관 사업이 올해 일부 마무리 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0억을 들여 경관조명 15종 등 총 600여점의 야간경관 조형물을 설

치하고 올해 함평 축제 최초로 무료 야간 개장을 실시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켜는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 함평을 대표하는 함평나비부터 임시정부, 가을 국화 등을 색다르게 표현했다.

다만 토요일 한 차례만 운영되는 탓에 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군은 금요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진도군, 가족문제 전문강사 이호선씨 초청 청년아카데미 개최

### 가족을 움직이는 소통 심리학

진도군이 지난 24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방송인 이호선 가족문제 전문가(숭실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청년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가족을 움직이는 소통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부모를 통해 아이가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과 중년 이후 자녀와 행복하게 지내는 법

등 부모에게 필요한 자녀 훈육법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청년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주역인 청년들과 관심 있는 군민 300여명이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군은 청년 아카데미가 지역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관심사항에 대해 소통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기반 마련 등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돌아와 정착하는 청년이 행복한 땅, 기회의 땅 진도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에게 동기 부여와 활력이 되는 유익한 특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내일 개관

영암군은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오는 29일 개관식을 갖게 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월출산 기차랜드 일원에 문화관광 시설을 집적화시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트로트 셀럽마케팅에 주력하여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 전통 가요의 산실과 남도 르네상스를 선도하게 될 한국트로

트가요센터는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203㎡,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지상 1층에는 상설전시장과 명예의 전당, 추억의 명소를 만들었으며,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국내 대중음악의 대표적인 장르인 트로트 음악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영암지역 출신 국민가수 허춘희씨가 50년 넘게 가수활동을 하면서 모든 자료와 한국 대중음악사의 수집물을 기증·전시하여 미스트롯의 열풍과 함께 전국의 트로트 애창가와 열혈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